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2월 1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 이 성 희 -

저는 어릴 때 친구를 따라 동네 교회에 가보고 또 중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천국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21살 이른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굳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26살이던 95년 여름, 어느 날부터 항상 똑같은 밤색 가방을 든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복음전도지를 전해주시며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매번 제가 반가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꾸준히 찾아오셔서 복음지를 읽어 주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되어서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는데 눈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집사님이 자주 얘기해주신 성경 장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 저는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구역장님이 오셔서 복음지를 읽어 주셨는데, 그 때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었고 그 구역장님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는 다녀도 평소에 전도를 잘 하지 않던 주인아주머니가 그 무렵부터 저를 전도하셔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간 날부터 저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몇 군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간절하게 성경중심으로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갈급함 때문에 전에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님이 오셔서 읽어 주셨던 복음지에 실린 말씀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저의 시댁 집안은 일가친척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시어머님이 제가 시댁에 가거나 어디서 저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시어머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는 길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드리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남편까지 합세하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였습니다. 소화불량 증상으로 매 끼니 죽만 먹으면서 몸도 점점 아프고 야위어 갔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되자 저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마다 다 참석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허리디스크로 인해 앉고 걷는 일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도 주일이 되면 두 시간씩 외출 허락을 받아서 가본 적이 없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어떤 분이 은혜와진리교회를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이른 봄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온유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온유해야 한다.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성령과 말씀 안에 길들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시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익사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때, 제 눈에 강단의 모습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그 때의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내 은혜와 감동으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놀라고 감격해서 얼마 안 되지만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나서는 데, 기분이 상쾌하고 금방이라도 몸이 날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저는 그날 이후 8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방황을 끝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어 소속한 교구와 구역에서 훌륭한 전도사님과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를 향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차츰 저의 가정을 적시고 또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강해설교를 경청하면서 차곡차곡 성경지식이 쌓이고 말씀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지에 게재된 구역예배 말씀과 간증문을 읽으면서 22년 전, 그때 구역장님이 읽어주고 전해준 그 복음지여서 더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아픔과 상처를 말끔히 없애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날은 목사님이 서계신 강단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앉아 예배 드리는 성전이 마치 깊고 고요하고 깨끗한 바닷속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신비롭고 은혜로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제가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치 우리집에 오셔서 우리 둘의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펼쳐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저는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 발에 등이요, 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저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생겨 4년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얼른 약을 끊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기이하게도 “이제는 약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듯하여 약을 끊고 그 며칠 후 병원

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초음파 검사에서 하얗게 나타났던 염증도 모두 사라졌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장에 돌이 10개 정도가 있고 자궁에도 작은 혹이 하나가 있어 둘 다 더 커지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신유기도를 받는 중에 결석과 혹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놀라시고 특히 ‘신장에 있던 돌을 어떻게 없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약했던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2017년 5월 첫째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부모는 특히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예배, 봉사, 전도, 기도하는 습관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성심성의껏 헌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원하던 직장으로 이직하고 연봉도 두 배로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딸도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주었고, 아들과 딸 모두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연봉이 두 배가 오르고 정년의 기한을 넘겨 오래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4년 전부터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셨고, 남편도 더 이상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두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남편을 변화시키셔서 저와 한마음이 되어 가정을 돌보며 헌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구역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전도와 성전 미화와 예배를 위해 즐겁게 봉사하게 해 주시더니 최근에는 성가대 봉사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던 날,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기에 앞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때마다 무척 즐겁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냥 행복하며 가슴뽀뽀합니다.

제 아들과 딸이 아직 미혼인데, 며칠 전에 교구 전도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믿고 순종함으로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구역장님들, 교회에 봉사하러 가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돌리는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감동이 넘치는 우리 교회, 제가 그리워하고 원했던 그 교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주님,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7과) 성령의 은사

- 본문 : 고린도전서 12:4-11
- 요절 :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 찬송 : 174장(새찬송가 196장), 은혜와진리찬양 137장

고린도교회는 교인의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소시민이나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교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불경건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으나 받은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생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출처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1. 은사는 성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사란 성도 각자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입니다(엡 4:7). 즉,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고전 12:4)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직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직임을 주시는 주님도 한 분이시며(고전 12:5) 하나님께서 맡기는 역사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고전 12:6).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인간적인 명예나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고전 12:7).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은사를 부여받은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를 이용하여 인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6-18)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사용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3. 은사를 사모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 12:31)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사모하여 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 13:12)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사는 그것을 열심히 활용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며 유익한 결과를 내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은사를 그냥 방치하고 활용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4.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적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귄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매사를 지혜롭게 교회에 덕이 되게 행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능과 경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과 능력에 관련된 은사를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보다 한층 더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둘째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를 신유의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막 16:17-18),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부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이 신유의 은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는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이 은사를 더욱 불 일듯 일으켜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 것이나(행 9:36-42) 바울 사도가 복음전도를 훼방하는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명하자 엘루마가 즉시 소경이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행 13:9-12).

(3) 예언과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역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점을 치듯이 타인의 앞날에 대하여 길흉을 말하여서 공포 분위기나 불안을 조성하거나 또 예언의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동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덕스럽고 거룩하며 권위가 있지만 악령의 역사는 분쟁을 일으키고 추하며 억압적입니다.

(4)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표적을 말합니다.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외에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방언을 인간의 언어로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은사의 목적과 출처 및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되,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홍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면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